

우리는 제 1 독서와 전례에 의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시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대림절과 크리스마스 동안 우리가 이야기 할 주제를 파악했고, 주제는: ‘다시 시작해라’ 입니다.

올해는 도전적인 해였고,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영적으로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만하고, 고갈되거나, 낙담하거나,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우리 삶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인류와의 모든 언약을 갱신하는 요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십니다 (cf. CCC 55).

- 하느님께서서는 제1 독서에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이사 40:1-2). 라고 말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완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 밖으로 밀려나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1독서에서는 예루살렘 국민을 위한 고통의 시기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Begin Again* 의 주제는 1759-1830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이탈리아 사제인 Venerable Bruno

Lanteri([https://en.wikipedia.org/wiki/Bruno\\_Lanteri#/media/File:Pio\\_Bruno\\_Lanteri\\_OMV.jpg](https://en.wikipedia.org/wiki/Bruno_Lanteri#/media/File:Pio_Bruno_Lanteri_OMV.jpg))의 가르침에서 따온 것이고: 프랑스 혁명은 신부와 수녀들이 살해되는 등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 내부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진실을 밝혀라’

(<https://www.omvusa.org/bruno-lanteri/about-bruno-lanteri/history/>)는 안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 벤 부르노의 생애에서 그가 섬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은 낙담,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 유혹 당했지만, 그의 주된 메시지는 “절대 좌절에 굴복하지 말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즉시 마음을 드높이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Fr. Timothy Gallagher, *Overcoming Spiritual*

*Discouragement, 6-7).*

여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 1) 하느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한 시편에 “주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소서”(시편 84)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전 두 번의 크리스마스 미사 동안 나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Hesed* 라는 단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임을 알고 있나요?

- 벤. 부르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로 그분을 축정하거나, 우리의 흔들림, 약점, 부주의에 지치셨다고; 곧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도움을 철회하고 은총을 거두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분을 진정으로 선행과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찬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데 지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용서를 구할 때 큰 기쁨과 명예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도록 하자”(<https://www.omvusa.org/bruno-lanteri/life-legacy/begin-again/from-begin-again/>).

항상 늦고, 뒤편이라고 약속하고 절대로 뒤편이 아니고,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처럼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분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는 올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섬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 년 전에 한 여자가 내게 와서

신부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두 사제들을 찾았습니다. 불행히도 이 두 사제들은 그녀에게 하느님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제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논평은 그녀의 초점을 그분의 자녀로서 그녀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 여자처럼 우리 모두는 삶과 과거에 취약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드러낼 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 이 여성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 나는 몇년 동안 내게 드러났던 일종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언젠든, 나의 두명의 영적지도자인 P. Alban 과 Msgr. O'Brien에게 나의 인생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 할 때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느슨하지도 않았고, 양심적이었고, 지나치지도 않았으며, 항상 차분하고 사랑스럽고 이성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내게 그녀의 유혹에 대해 나에게 드러냈을 때, 나는 과민반응이나 충격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나 그녀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나쁜 유혹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분께 공개한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거나 중대한 죄를 지은것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분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 2)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한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성인은 제2독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8-9).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죄로 부터 벗어나 그를 향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에서 그분을 향해 움직일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은 고통을 포함합니다.

- 올해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목적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 단계의 행복의 수준이 있다고 믿습니까(<http://thejustmeasure.ca/wp-content/uploads/2018/10/Four-Levels-of-Happiness.png>)? 철학자들은 이것은 4개의 단계가 있으며, 70%의 사람들이 1단계와 2단계인 즐거움과 자아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수준에서 산다면, COVID-19 상황은 우리의 행복을 크게 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무엇을 하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 궁극적인 선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데 집중하게 합니다.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1, 2 단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원하시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식들이 역경을 겪도록 허락하고, 그런 이유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인식의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기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덕망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요?
- 우리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항상 고통을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절망의 순간, 이 진실은 나를 집중하게 했고 절망감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것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복음은 성인 사도 요한 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마르 1:4)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 벤 브르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낙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나는 천 번 넘어지지만, 매번... 나의 약점을 알고, 주님, 당신의 큰 자비를 알고 있으므로, 처음인 것처럼 다시 평화롭게 일어설 것입니다...내가 하루에 천 번을 넘어진다고 해도, 천 번을 평화로운 회개로, 나는 즉시 말할 것이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https://www.omvusa.org/bruno-lanteri/life-legacy/begin-again/from-begin-again/>).
-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죄를 짓나요? 우리가 일어나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과, 차 안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함으로, 등등.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느님의 큰 자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천 번 넘어지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천 번 평화롭게 일어나 하느님께 향할 것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동안 고백성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새롭게 해 주는지에 대해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며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어제 나는 고백성사를 위한 줄이 6시간 연속으로 성사를 주게된 것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우리는 우리 교구에 대한 신의 비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에 대한 사랑, 성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리고 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분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받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그리고 1월7일 알파를 기대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회복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10주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환하게 웃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여러분이 나에게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받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개의 큰 부분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때로는 매 시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